

호시노재심 뉴스 187 후 2012년 12월 15일발행



전증거개시 대운동을 확대해 2013년 호시노(星野)씨 해방에



아카바네(赤羽) 회관에서 열린 11·23 호시노판재심 전국집회

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대운동 찬동인의 호소

모든 증거개시의 의의



재심변호인 후지타 조지(藤田 城治)

오늘은 재심변호단으로서 왜 지금 호시노재심에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요구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은 압도적인 힘과 인원과 돈을 들여 수많은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 증거는 예를 들자면 물증이나 사진등 혹은 목격자의 목격증언이라던가 여러가지 보고서등 각종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수사활동은 전부 수사당국의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방대한 증거속에서 검찰관은 베스트 에비던스=최량의 증거라 칭하며 자신의 각본에 맞는 증거만을 선별해서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사자료 중에서 법정에 나오는 양이 십분의 일 정도인것은 매우 흔합니다. 다른쪽으로는 검찰관의 각본에 맞지않는 증거 더구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숨겨지고 만다. 이것은 얼마전 컴퓨터의 원격조종사건등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이 검찰관이 숨기고 있는 카드 이것을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열람하는 수단이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증거개시라는 수속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판원 재판이라는 이상한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백을 중시한 혹은 목격자의 증언을 중시한 유죄판결 지금 이것의 신용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죄가 강요당한 자백 혹은 허위의 유도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있는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너트리는 것이 증거개시에 의해 얻은 진실의 증거 이것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의 증거를 숨기지 말라

제 1차 재심의 특별항소심에서 최고재판소는 호시노(星野)씨의 옷이 담청색이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변호단은 제 2차 재심청구에서 증거개시를 요구해왔습니다. 거기서 개시된 사진에는 호시노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철파이프에는 전혀 타격흔이라 불리는 흔적은 없습니다. 새하얀 깨끗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증거를 더욱더 분석해서 철파이프에 전혀 손상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명백하게 하고 싶어서 필림의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증거개시의 필요성은 없다며 이것을 물리치고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소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자세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사진의 필름 이라던가 혹은 지금까지 재판에 나왔던 사람 이외의 목격자의 홍술조서를 개시하라고 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아직 방대한 양의 호시노(星野)씨의 무죄를 나타내는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소의 자세를 바꾸려면 진실의 증거를 내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재판소에 대해 증거를 숨기려 하는 태도를 탄핵하고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는 목소리로 재판소를 포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변호단에게 더욱더 무기를 수여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가 되어 분발해 나갑시다.

재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증거개시



"무죄의 고빈다씨를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카쿠노 미키코(客野 美喜子)

"토쿄전력 여성사원 살인사건"에서 고빈다씨가 재심무죄를 달성한 것은 기쁘지만 역시 기쁨만 할 기분은 아닙니다. 재판은 오판의 원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폐정후에도 사죄의 말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소는 확정판결은 어디까지나 올바르다는 것이 전제여서 재심을 여는 것은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했을 때에만 한정 되는 것입니다. 고빈다씨의 경우 재심개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신증거 즉 재심청구중에서 작년부터 해왔던 DNA 감정의 대상이 된 많은 물증입니다만 이것들은 모두 검찰의 가지고 있는 증거 속에 있었던 것 들 뿐입니다 초동 수사의 단계에서 부터 알고 있으면서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 꺼내면 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증거개시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애당초 검찰이 유죄입증에 도움되는 증거만 법정에 제출하면 된다 피고인을 무죄의 방향으로 이끄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현행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한 검찰의 태도는 원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빈다씨는 "무죄인데도 형무소에 가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라는 것은 호시노씨는 물론 입니다만 모든 원죄의 피해자 관계자가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운동에 의해 호시노씨와 여러분의 불굴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의 시간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쿄전력 여성사원 살인사건

고빈다.프라사드.마이나라씨는 1997년 "토쿄전력 여성사원 살인사건"에서 날조당해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2012년 6월 7일 재심개시와 형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어 18년만에 नेपाल에 귀국. 11월 7일 무죄판결이 나왔다.

후쿠시마(福島).오кина와(沖繩).많은 사람이 손을 잡아나가자

사쿠라노세이보(桜の聖母)단기대학 명예교수 후쿠시마.되찾는 모임 호소인



사사키 노부오(佐々木 信夫)

거짓이 일본에 만연하고 있다. 우선 도쿄전력의 거짓말. 후쿠시마(福島)에 원전을 만들고 "원전은 안전 안심 환경에도 좋다 이렇게 좋은 전력은 없다"고 매일같이 TV에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월 11일 그 사고를 뭐라 했는가. "예상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상외의 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원전은 폭발해서 붕괴해 버렸다. 그 처리의 방법조차 전부 숨기고 말았다. 거짓을 우리에게 떠맡겼다. 더구나 지금 가설주택에 살고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이 자살을 하는 사태가 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합니다. 또 오кина와(沖繩)의 문제입니다. 미군병사에 의한 폭력 오스프리의 배치가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전쟁말기에 오кина와(沖繩)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더욱해서 전후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격게하고 있다. 호시노(星野)씨가 오кина와에 화를 냈던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참고가 되는 증거를 모아 맞지 않으면 개찬한다. 이런행위가 이루어진 판결이 나왔다. 형무소에서는 호시노(星野)씨가 싸우고 있다. 그것을 형무소의 관리놈들이 여러가지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부인이신 아키코(暁子)씨의 면회를 방해한다. 친구의 면회를 방해한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는 호시노(星野)씨 조차 방해를 당했습니다. 편지나 무엇이든 전부 검열한다. 틀림없이 호시노(星野)씨를 해방하는 문은 두껍다 그러나 이 해결에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시노씨는 무죄라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 손을 잡고 이문을 여는 것 그외에는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그 형무소의 무거운 문을 엮시다. 그안에서 호시노씨가 빛에 싸여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앞으로도 싸웁시다.

옥중의 고투에 기억을 겹쳐



국철투쟁 전국운동 호소인 김 원중(金元重)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한국인 2 세입니다. 1974 년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모국어.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유학을 갔습니다. 이듬해 75 년 가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만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불법구금인 체로 가혹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허위의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간첩혐의로 기소당해 징역 7 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일 한국인 유학생 십수명과 한국의 국내학생 십수명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판결 4 명을 포함해 중형선고가 잇따랐습니다. 하기는 그때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그후 감형되어 80 년대말 부터 90 년대에 걸쳐 한국의 민주화의 진전과 일본에서의 구원활동의 힘으로 인해 일본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중에는 옥중 19 년이라는 싸움으로 유명한 서승(徐勝)씨도 있었습니다. 저는 1982 년 12 월에 7 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대전형무소에서 나와 일본으로 돌아 왔습니다. 사건으로 부터 30 년이 지난 작년 4 월에 서울 고등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11 월에 재심개시 결정이 나와 심리가 시작되어 올해 3 월 29 일에는 무죄선고를 받아 4 월 6 일에는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작년가을 국철 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의 국제연대집회때에 처음으로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씨와 만났습니다. 올해 3 월 29 일의 재판공판을 앞두고 한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때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씨로부터 정중한 엽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죄로서 7 년간 형무소생활을 했었을 때 부터 호시노씨가 38 년간 견뎌왔던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의 고통 혹은 독서나 집필이 제한 당하는 괴로움을 통절하게 느낍니다. 지금 38 년의 옥중생활을 보내고 있는 호시노씨의 근본적인 해방을 위해 우리들이 형무소의 있어야 할 모습을 위해 고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변호단 보고

증거개시 운동은 재판투쟁과 운동의 매듭



재심변호단장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

지금 제 2 차 재심의 이의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에누리 없이 재판투쟁적으로서는 적을 꺾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시노씨는 현장에서 기동대원을 직접 때렸다 혹은 화염병 투척의 지시를 했다고 하는 두가지가 유죄의 근거입니다만 두쪽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Kr 홍술에 의하면 열은 다갈색옷을 입은 사람이 때리고 있었다 그것은 호시노씨다 그러니까 호시노씨가 때리고 있었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색같이 잘못본 것이라고 제 1 차 재심단계에서 최고재판소가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구타한 사람은 호시노라고 Kr 은 뒷모습하고 목소리로 알았다고 허튼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2 차 재심기각 결정에서는 "취조에 있어서 유도는 부당한 유도가 아닌한 문제없다 유도하지 않은 이츠클시마(巖島)감정서는 신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말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 월 5 일의 토쿠시마(徳島)형무소 포위투쟁을 계기로 재심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사법권력을 어떻게 처부수는가에 최대의 지혜와 힘을 집중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면적인 증거개시의 싸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의 찬동인 분들의 발언 저렇게까지 뜨거운 마음과 깊은마음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움직인다. 운동을 넓혀 적을 압도한다.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증거개시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에 다시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대운동에 변호사가 약 240 명 찬동해 지금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인가. 하나는 검찰관이 증거를 숨겨두고 있는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원제도로 증거개시가 전진했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신속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만을 선택하거나 혹은 증거를 요약한다. 그런 형식으로 결국은 증거를 숨긴다. 거기에 변호사가 나날이 직면하고 있으니까 많은 서명이 금방 모인다. 또 하나는 오키나와(沖繩)투쟁을 싸운 호시노씨가 옥중 38 년 이라는것. 평균연령 30 대 중반의 변호사에게 있어서 태어나기 전 부터인 38 년을 게다가 오키나와(沖繩)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 것. 지금의 오키나와(沖繩)가 거기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호시노씨를 되찾는 싸움은 현재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투쟁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인민은 호시노씨를 정면으로 부터 호소 했을때 가슴에 직접 전해져 우리들의 운동에 호응해 반드시 꺾기한다. 증거개시운동은 재판투쟁으로서의 재판투쟁과 재심운동을 연결시키는 매듭에 위치하는 대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우리들의 힘을 합쳐 호시노씨를 되찾읍시다.

현장목격자의 홍술조서를 개시하라



주임변호인 이와이 미코토(岩井 信)

호시노씨는 당일 데모의 지도자로서 전체를 보고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타하던 곳에 있었다면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십자로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NHK 쪽을 봤을때 자동차의 정면 유리가 번쩍 빛난것이 생각나 보고하고 왔습니다. 요전에 본건과 같은날인 11 월 14 일에 다시한번 그순간 십자로에 서서 비디오를 촬영하려고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본건이 있었던 오후 3 시 25 분경 마침 버스가 오고 그순간 빛이 속하고 나오더니 또 속하고 가버립니다. 그냥 계속 빛나고 있는것이 아니고 바로 빛 자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건 당일의 같은 시간에 본것으로 저는 다시한번 호시노씨의 무죄를 확신 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호시노씨가 때리고 있었다는 K 씨의 홍술은 너무 상세하다 이것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유도 당했기 때문이라고 입증한 이츠키시마(巖島)감정서에 대해 "수사관에 의한 유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한 기억환기의 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유도니까 상세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반론 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취조관 이었던 나카츠가와(中津川)검사는 당일 호시노씨의 데모대의 구성원이었던 M 씨를 취조해 "현장에 K 씨가 있었다"라는 홍술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K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는것을 알아 K 씨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M 씨는 유도당하고 강제로 허위의 홍술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같은 나카츠가와(中津川)검사가 만든 본건의 조서도 역시 부당한 강요와 유도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홍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증거개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목격자의 홍술조서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시하라고 고등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으며 큰 물결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토쿠시마 면회일기

"진정한 단결과 힘을 쟁취해 승리하자"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

11월 19일 일년만인 후미아키(文昭)의 사촌형.타카오(誉夫)씨와 동행한 면회였다. 4월부터 "지도표"가 난발하는 것은 없어졌다. "작년여름 신청한 고충신청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의료폭동이 있고 나서 『규칙이 느슨해져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총괄을 해서 여지껏 없었던 규칙을 만들어 짓누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방법은 여기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깎아 오히려 역효과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고충신청이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타카오(誉夫)씨는 "안에서의 생활의 상태를 하루단위 일주일단위 한달단위로 써보면 어떻냐"고 권했다. 타카오(誉夫)씨가 "후미아키짱이 나올 때 까지 분발할태니까"라고 말하며 첫날의 면회를 마쳤다. 면회후 청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틀째의 면회.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녀온 방한보고를 했다. 후미아키에게는 서울에서 매일 엽서를 보냈고 긴 보고의 편지도 보냈다. "박정희 독재정권하인 한국에서의 싸움은 『세계』의 『한국으로 뷰티의 통신』에서 읽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본에 오게 되고 나서 점점 서로의 거리가 좁혀졌어. 아키코(暁子)도 격려를 받았을거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달력은 우리들의 도착점

FUMIAKIKO 달력은 글자가 안보이도록 풀을 붙여서 차입했지만 풀이 벗겨진 상태로 집에 가져가게 되었다. 후미아키에게는 아크릴판 넘어로 달력을 보여줬다. "견본보다 색깔이 좋은것 같아. 우리들의 도달한 것이 달력에 반영되어있다"고 만족한 것 같았다. 그러나 달력을 후미아키가 손에 쥐고 볼 수 없는 상황은 용서할 수 없다. 면회하고 돌아와서 풀이 벗겨지지 않게해서 다시 차입했다. 야마가타(山形)의 시설에 있는 나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아키코와 함께 도쿄에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신 것은 처음이었다.

"23일의 집회에서 후미아키의 메시지를 읽는데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뭐야?"라고 물어 봤다.

"아키코가 말했던 나의 38년 함께 살아왔던 26년은 본보기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뒤엎기 위한 38년과 26년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아키코가 그렇게 말해주는게 나도 기뻐.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과 호시노탈환투쟁을 하나가 되어 싸워 진정한 단결과 힘을 쟁취해 승리해 나가자는 거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삼일째의 면회를 마쳤다.